

사랑이 있을 때 빛난다

문애란 G&M 글로벌 문화재단대표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소리 없이 강하다', '미인은 잠꾸러기' 등
칸국제광고제에서 은사자상을 수상하는 등
광고계 인사, 여성 1호 키피라이터, 문애란.
홀연히 광고계를 떠나
2006년부터 국제구호단체 캠페션에서
2013년부터는 G&M글로벌문화재단을 맡고 있다.
오랜 친구인 Young2080의 대표이자
영원한 젊은이, 고직한 선교사와 함께 만나다.



고직한 (이하 고) 이렇게 소개하려니 어색합니다만(웃음), <월드 뷰> 독자들을 위해 그간 하신 일을 잠시 여쭙겠습니다. 지금은 다른 일을 하십니다만, 젊은 시절 광고인으로, 여성 카피라이터 1호, 광고의 여신, 이런 호칭으로 불리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카피라 하면 뭐가 있을까요?

문애란 (이하 문) 광고가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제가 했다고 이야기하기는 쑥스럽지만... 저희 웰콤에서 만든 광고중에서 가장 회자화 되었던 광고는 자동차 광고였죠. '셋!', 소리가 차를 말한다라는 헤드라인으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었죠. 당시 IMF 시절에 출시된 차였는데, 그 회사의 다른 차종이 너무나도 시끄러워서 소비자 불만이 많았어요. 이 차는 개발자가 트렁크에 들어가서 소리를 들을 정도로 소음제거에 엄청난 노력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제 귀에 딱 꽂혔습니다. '소리가 없는 차'라는 장점과 사람들이 차가 고장 나면 항상 하는 말이 '소리가 이상하다'고 하는 인사이트와 결부 시킨 것이 크게 사람들의 마음을 잡은 것이지요. 그래서 '셋'이라는 한 자의 카피와 아이디어로 자동차 판매 1위도 하고, 깐느 은사좌상도 받고 대한민국 광고 대상도 받았었지요.

고 또 이런 광고도 있었지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어떤 배경에서 나온 광고였나요?

문 이 광고도 IMF때 만들었던 거예요. 당시 TV만 켜면 카드광고가 나올 때였는데, 대부분의 카드회사가 사랑, 성공 등을 소구하여 소비자 포지셔닝이 잡힌 상태라, 후발주자인 우리가 들어갈 곳이 없었습니다. 비어있는 타켓인 직장인을 잡기로 했는데, 당시 많은 직장인들이 회사에서 잘리고, 또 잘릴까봐 전전공공하던 때였는데,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라는 카피가 수많은 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나봐요. 엄청 인기가 많았습니다. 또하나 꼽으라면 '미인은 잠꾸러기'라는 화장품 광고 카피를 들고 싶어요. 웰컴 설립 초창기에 한 광고인데, 당시 매출이 40억정도 었던 회사가 광고 6개월 만에 수백억으로 매출이 뛰었었지요.



현대카드의 '떠나라' 광고

교 대학 졸업 이후에 바로 광고 회사에 입사하셨습니까. 당시 이야기를 해주시지요.

문 졸업전에 우연히 광고회사에서 처음으로 카피라이터를 뽑는다는 학교 게시판을 보고 입사시험을 치렀었지요. 800대 1이라는 어려운 관문을 뚫고 들어 갔지만... 실력이 아니라 바로 전날 상식 문제를 풀어 보았는데, 거기서 다 나와서 합격한거지요. 그후 화장품회사, 다른 광고대행사를 거쳐서 1987년 웰컴이라는 회사를 광고인 세명과 창립했죠. 저보다 늘 실력있고 멋진 분들하고 일했는데, 제가 여자라서 늘 마스크의 초점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실력보다 허명으로 유명세를 타게 되었지요.

교 <월드뷰> 독자들은 자신의 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드러낼 것인지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자신의 일, 지금은 일과 신앙을 통합적으로 이해하시고 있으십니까만, 당시는 어떠셨나요?

문 당시는 이원적이었죠. 그것도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기독교세계관이란 말은커녕, IVF, CCC등도 몰랐고요. 그냥 교회를 다녔고, 주일 예배때 목사님 말씀을 듣는 것이 전부였지요. 그리고 그때는 부흥집회가 많았는데 대부분이 기복적인 말씀이었지요. 어쩌면 그 분들이 들려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을 이해했던 것 같아요. 돌아보면 감사하게도 주님이 계시다는 것은 알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모두가 그러하듯, 직장생활이든 가정생활이든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둘째 아이를 낳고 얼마 안되서 남편이 심장수술을 했거든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의 심장수술은 삶과 죽음을 가르는 어려운 수술이었지요. 병실에서 남편의 병을 가지고 주님께 토로하며 기도할 때, 주님은 제게 비밀의 응답을 허락하셨어요. 그 날 새벽, 병원 문을 나오면서 보였던 십자가가 너무나 강렬하게 저를 초청해서, 그 후로 새벽기도를 꼭 가게 되었어요.

교 그때에도 광고장이로서의 자신의 일과 신앙을 연결시켜 생각해보지는 않았죠?

문 그런 얘기를 들어 본 적도 없었죠. 교회에서는 ‘헌금 많이 해라, 전도해라, 봉사해라’인데 광고인들의 99%가 비크리스천이고, 전 전도를 잘할 수 없으니까 늘 죄책감이 많았지요. 더구나 광고주 중 몇 분이 크리스천이고 또 크리스천 기업이었는데, 그 회사를 가보면 다들 그분을 욕해요. 밖에서는 신실한 크리스천으로 알려졌는데도, 자기 직원들의 평가는 그렇지 않은 것을 보면서 이걸 독이다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욕먹일까봐 크리스천이라 말하는 것도 두려워했어요. 새벽기도를 열심히 하니 교회에서는 꽤 믿음이 좋은 걸로 생각하시는데... 정작 저는 봉사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제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 같지 않으니까 죄책감으로 가득차서 무척이나 힘들었어요. 생각하는 것과 행하는 것, 사는 것이 한데 어우러지지 않아 마치 한다리는 세상에, 한 다리는 교회에 있는 것같이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교 더군다나 광고는 자본주의의 꽃이라고도 하죠. 사람들의 필요와 욕심을 자극하기도 해야 하고요.

문 광고가 완전히 거짓말은 아닌데 약간 과장해야 하죠. 예전에 한 신입사원을 뽑았는데 그만두겠다, 자기는 고가 운동화 광고하는 걸 용납 못하겠다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전 그 친구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크리스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사회 정의 측면에서 이해했어야 하는데 당시는 ‘광고하는 사람이 그런 상업적인 마인드가 없으면 관둬야지’ 했어요. 그런 일이 많았고, 아직도 이런 사람이 많다고 생각해요.

이런 고민을 목회자나 신앙 선배님들에게 털어 놓았는데도 그 분들에게서 속 시원한 답을 듣지 못했었어요. 당시는 참 힘들었다는 기억밖에 없습니다.

교 ■ 그렇게 창립한 웰컴에서 창립20주년을 맞이하여 대표 자리를 내려놓으셨습니다.

문 ■ 내려놓는다는 말을 하기가 미안하네요. 광고계에서는 저희 회사나 지나 꽤 인정도 많아 받았지요. 밖에서 볼 때는 경쟁 프리젠테이션에서 매년 이기고 언론에도 노출이 잦다보니, 찬란한 인생의 전성기였지요. 하지만 남들이 말하는 성공이 커지면 커질 수록 저는 무척이나 힘들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매일 입버릇처럼 남편에게 이야기 했어요. 선교사가 뭔지도 모르면서 '난 선교사로 떠나겠다'고요. 그즈음 저희 회사가 사옥을 지었는데 좀 유명한 건축물이었어요. 돌아가신 고(故)하용조 목사님께서 목사님들을 위한 강의를 요청하셔서 강의를 마친후, 건물 투어를 해드렸는데 불쑥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세상광고를 잘 하는데 하나님 광고도 해보지?" 그 말씀이 저에게 큰 터닝포인트였습니다.

처음으로 제 일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나라에 쓰일 수 있을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어요. 온누리교회에서 그때 맞춤 전도집회를 시작하였는데, 광고하듯이 슬로건도 만들고 영상도 제작해서 도와드리면서 광고에서 못 느꼈던 다른 재미를 느꼈습니다. 그 때 하목사님과 성경공부도 하면서 여러 크리스천 롤모델(role model)도 만나는 축복을 받게 되었지요. 삶과 신앙이 일치되는 분들을 그곳에서 처음 본 거예요. 저렇게 살고싶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저의 남은 인생의 후반기 하프타임(Halftime)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게 되었어요. 직업상, 꽤 성공한 분들을 많이 뵈곤 했는데, 대부분 60대가 지나면서 노욕으로 인해 삶이 망가지는 것을 자주 보게 되니까, 제 삶에 대해서도 기도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컴패션을 만나게 되었고, 회사일은 잘 안하고 컴패션 일만 열심을 다하는 자신을 보면서 이제는 떠날 때가 되었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카고로 여행을 갔는데, 갑자기 신문에 은퇴했다고 기사가 크게 났어요. 그래서 은퇴가 되어 버린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겠지요. 그 후 몇년간 컴패션에서 일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많이 배웠습니다.



교 ■ 만약, 그때 지금과 같은 일과 신앙의 통합적 관점을 가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문 ■ 저는 일하면서 일과 신앙의 간극이 너무 커서 해결책을 찾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세상과 일을 창조하셨는데 이렇게 힘들게 살라고 할리가 없다 싶었죠. 답을 찾고 싶어서 미국의 〈일과 신학 연구소(Center for Faith and Work)〉도 가보고 여러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던 중 앤디 밀스(Andy Mills, Archegos Capital Management 회장, Kings college의 이사장)을 만나 일과 신앙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갖게 되었지요. 이 분도 34살에 예수를 믿고 난 후, 저와 같은 고민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10여명의 CEO들과 신학자들이 7~8년에 걸쳐 성경 속에서 하나님 관점에서 일의 정의, 목적, 의미를 찾고, 일하는 사람들의 고민을 말씀 속에서 찾는 작업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완성된 웹사이트가 [Theology of Work .org]예요. 왜 하나님이 일을 만드셨는지, 일의 의미는 무엇인지, 일의 방법, 일이 추구해야 할 가치는 무엇인지, 일을 하는 평가기준 등을 성경 속에서 찾아내신 것이지요. 그때 내가 이런 걸 미리 알았더라면, 광고를 그만두지 않았을 텐데 싶더라고요. 분명 하나님께서 광고라는 걸 통해서 하셨어야 될 일이 있을 테고, 하나님과는 무관하다 싶은 이 어려운 업종도 하나님의 주권아래 있는데 말이죠.

교 ■ 일의 신학,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문 ■ 누구든 자신이 처한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신의 일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역하며 일을 하잖아요. 일은 여기서 출발합니다.



●● 최선을 다한다는 것(well-done)에 그치는 것이
우리 일의 전부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배려하고,
함께 동행하며, 내 상품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할 수 있어야 하며(good).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한다(faithful)는 거죠. ●●

일의 신학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를 이야기 한다면, '일의 평가'를 예로 들어보죠. 이 부분이 저에게 큰 도전이 되었는데,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 칭하시잖아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일에 대한 평가 기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잘하는 것(well-done)'을 지향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모두 '잘하는 것'을 지향하죠. 저희는 이 '잘하는 것'을 넘어서는 평가기준을 가져야 합니다. 바로 두 번째 기준인 '착함(good)'입니다. 제품을 나쁘게 만들어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남을 누르고 나의 성과만을 추구했다던지... 하는 것은 이 두 번째 기준에 맞지 않지요. 그리고 마지막 기준이 필요합니다. 바로 "충성(faithful)"입니다. 매순간 내가 주와 동행하였는가를 묻는 기준입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것(well-done)에 그치는 것이 우리 일의 전부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배려하고, 함께 동행하며, 내 상품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할 수 있어야 하며(good),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한다(faithful)는 거죠.

고 대표님의 갈등이 오늘의 사역에 영향을 큰 미친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있는 G&M글로벌 문화재단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들을 하는지요. 저스트 쇼 업(Just Show Up)이라는 북클럽도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문 제 인생에 또 한 단계의 큰 고비가 있었죠. 그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모두가 배설물'이라는 것을 철저히 배우고 그로 인한 자유를 경험했어요. 내가 겪은 시련이 결국은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데서 왔다는 것을 깨달은 다음, '진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알고 싶었을 때, 큰 도움을 준 것이 바로 성경과 좋은 책이었습니다.



재단을 시작하며 성경과 좋은 책을 오디오로 녹음하여 책을 잘 읽지 않는 현대인들에게, 쉽게 책을 읽는 북클럽을 지원하게 되었어요. 'Just Show Up', 책 읽는 숙제 없이 '그냥 와' 이런 말이죠. 함께 모여 오디오로 책을 듣고 눈으로 읽고, 나누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돼요. 제가 5개의 북클럽을 하고 있는데, 함께 하는 분들의 나눔 속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요. 성경, 좋은 책, 북클럽 멤버와의 나눔, 이것을 통해 저 자신이 어느덧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월드뷰'가 바뀐 거죠.

고 벌써 G&M재단이 만들어진지가 4년째입니다.

문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 G&M재단에서 하는 일, 그리고 이 일을 시작하게 된 배경에 대해 좀 설명해주시죠.

문 정식 명칭은 그레이스 앤드 머시 글로벌문화재단(The Grace & Mercy Foundation Korea)이에요. 하나님 안의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고, 신앙과 일에 대해 알고 싶었을 무렵 만난 분이 미국에 있는 빌 황(Bill Whang)입니다. 그분이 미국에서 2007년, Grace and Mercy재단을 만들었어요. 전세계 신학교를 비롯하여 많은 곳을 후원하는 재단인데, 소외된 자들에 대한 관심이 특별히 많아요. 한국에도 이런 재단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했고, 그때 마침 쉬고 있던 제가 돕기 시작한 거지요.

빌 대표님이 한국에 오셔서 놀란 것이, 한국의 기독교인이 무려 19%에 달한다는데 한국 회사 내에는 비리가 너무 많고, 기복적인 신앙인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었어요. 살펴보니, 기독교인들이 도움이 되는 좋은 신앙서적을 거의 읽지 않는 것을 알게 되거죠. 그래서 좋은 서적을 선정하여 오디오로 만들고, 북클럽을 만들어 함께 읽도록 지원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되었지요(저스트 쇼 업, Just Show Up). 그리고 우리나라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보니 일과 삶의 통합이었어요. 이를 위해 연구소가 설립 되었고요(FWIA, Faith and Work Institute Asia). 기독교에 등을 돌린 많은 사람들에게 변증을 통해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으로 RZIM(Ravi Zacharias International Ministry)도 지원하려고 해요. 올해 5월 19일 라비 재커라이어스(Ravi Zacharias)가 한국 방문하시는 것을 계기로, 교회를 떠난 젊은이들을 초청하여 '어떠한 질문이라도 물어라, 답하겠다.'는 주제로 집회를 준비 중이에요. 또하나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것이 '커뮤니케이션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EHS, Emotional Healthy Spirituality). 어떻게 대화하며 이해할 것인가?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돕기 위해 지난해에 EHS의 피터(Peter Scazero)목사님을 초청하여, 은누리교회와 함께 지방이나 작은 교회의 목회자 부부를 대상으로 600명 정도 초청하여 관계 회복에 많은 도움을 주었고, 지속적으로 훈련받으면서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 피아(FWIA, Faith and Work Institute Asia)에 대해 조금더 설명해주세요.

문 일과 관련된 주제들, 일, 돈, 성공, 윤리, 관계, 갈등해소 등의 여섯가지 버킷으로 커리큘럼을 만들어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실제적인 상황 속에서 적용 가능한 성경말씀과 사례를 중심으로 교제를 만들어 각자의 일터 속에서 적극적으로 배우면서 행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구약학을 전공한 김윤희 교수님께서 대표로 수고하고 계시지요.

고 추후 아시아권까지 보급하려고 하는 거지요?

문 꿈은 그렇습니다만,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니... 그분께서 여실 것입니다.

고 지금까지의 문 대표님의 삶을 보면 저 높은 곳에서 저 낮은 곳까지 연결하는 파이프라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국내외 저명한 인사를 많이 알면서도 안주하지 않고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확장합니다. 그렇게 사는 이유가 있습니까?

문 직업 특성상 아주 높은 곳에 사는 사람도 만나봤고, 세계를 끌여가는 사람도 많이 봤지요. 그리고 컴패션을 통해 너무나도 가난하게 사는 분들도 보고요. 그런데 세상은 참 공평해요. 가난 중에도 예수 하나로 너무나도 부유한 사람을 봤고, 세상이 부러워할 부를 지녔음에도 불행한 이들도 수도 없이 봤습니다. 행복은 자리에 있지 않았거든요.

고 마지막으로 <월드뷰>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당부하고 싶은 한 말씀이라도요.

문 '지성은 사랑이 있을 때 빛난다'고 말하고 싶어요.

고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



고 직한 25년간 청년사역 한 길을 걸어온 고직한 선교사는 연세대학교와 호주SMBC(Sydney Missionary and College)를 졸업했다. 한국 IVF 총무를 역임했고, 한국 복음화협의회, 사랑의교회 청년대학부 디렉터를 거쳐 현재 청년목회자연합(Young2080)의 상임 대표이다. 저서로는 청년 사역 교과서인 『청년 사역, 맨땅에 헤딩하지 말자』, 『날아라 큐티맨』외 다수가 있다.

G&M 글로벌문화재단(The Grace & Mercy Foundation Korea)
홈페이지 <http://gnmkorea.org> | 대표번호 T. 02-2055-4088